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11. 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CCS 기술은 1996년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전세계 19개
(50만톤 이상)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상용규모로 운영 중
(경향 11.3일자 「골치 아픈 탄소, 땅에 묻으면 끝? 이 기술, 탄소중립
‘만능열쇠’일까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☐ 대규모 CCS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증된 사례는 없음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☐ 국제적으로 “대규모 CCS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증된 사례도 없다.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○ CCS 기술은 1996년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프로젝트가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전세계 19개 대형 CCS 프로젝트가 상용규모로 운영 중

*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프로젝트 (연 100만톤), 캐나다 퀘스트 프로젝트 (연 100만톤), 미국 일리노이프로젝트(연 130만톤) 등 연 50만톤 이상 19개 프로젝트 운영 중

○ 참고로, 현재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확인되는 실증 규모 이상 프로젝트는 305개에 달함

* 실증 완료 135개, 운영 단계 37개, 설계 및 건설 단계 56개, 초기 계획 단계 71개
(NETL,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,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, 2018)

※ 문의 : 성 시내 온실가스 감축팀장(044-203-5160) / 강정웅 사무관(5162)